500억원 폭염 피해 신안 양식장 어민들 두 번 운다

전복·어류 4600만마리 폐사
피해 어가 41% 입식 신고 안해
복구비 등 수백억대 보상 막막

신안 양식장의 전복과 어류 집단폐사 피해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피해 어가의 복구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피해 신고 어가의 40%가량이 어패류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해판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흑산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안지역 318어가에서 전복과 어류 4600만 마리가 폐사해 498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표〉

신안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밀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피해 신고 어가 중 상당수가 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 신고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피해 신고 318어가의 41.5%인 133어가가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액 기준으로 11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피해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가보조, 30%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어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 고수온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원인이 판명될 경우 입식신고 어가 역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입식신고 185어가 중 29어가(16%)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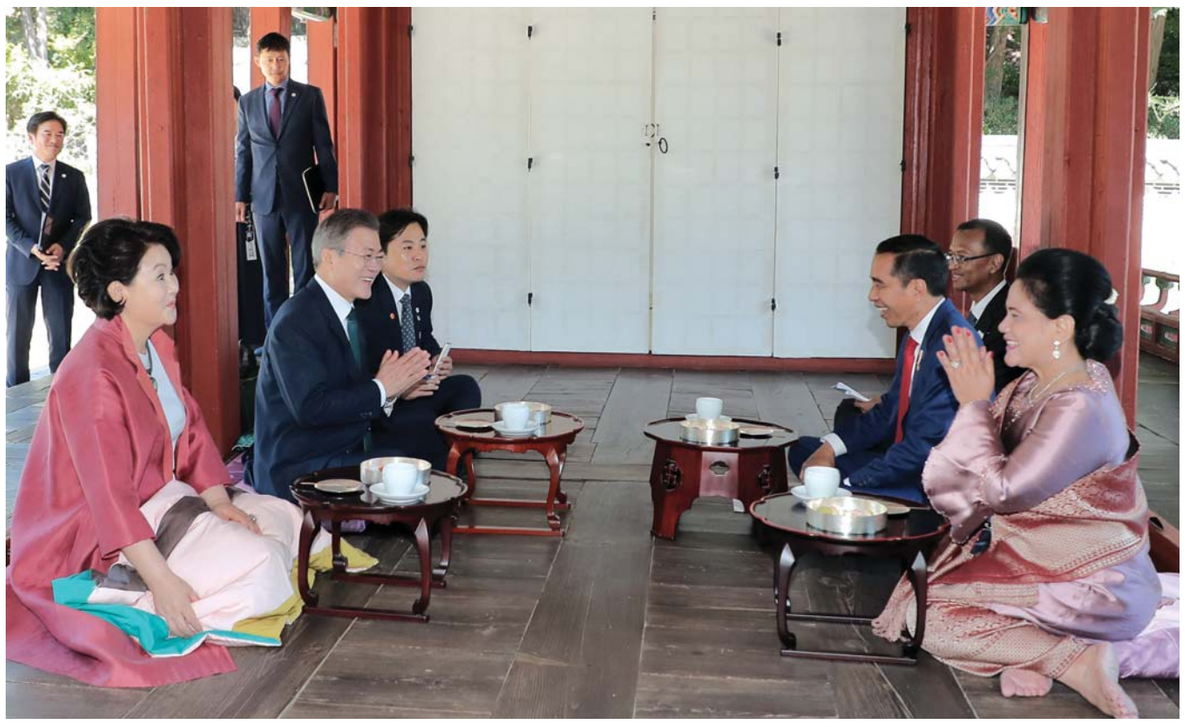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해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했다. 입식 신고는 재해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에 필수 조건이지만 평균 가입률은 6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해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에 대비한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신안군 고수온 피해 현황(총괄) (단위 : 호, 마리, 원)

	어가 수	사육량	피해량	피해액	비고
총 피해 어가계	318	8768만4700	4600만4000	498억5698만	재해보험 29
입식신고	185	7016만9500	3499만400	385억4895만	재해보험29 (전복23,우럭6)
입식미신고	133	1751만5200	1101만3600	113억803만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창덕궁 영화당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2% 피해 신고…장흥 키조개 양식장 쑥대밭

고수온 영향 추정…원인 분석중

장흥에서 고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 키조개 폐사 피해가 잇따라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국내 최대 키조개 주산지인 장흥 안양면 키조개 양식장 200ha 가운데 폐사 등 45ha(22.5%)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신고 45ha(213만마리) 중 75%(34여ha·153만 마리) 가량은 키조개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조개 생육의 적정 수온은 20~25도이지만, 최근까지 장흥 앞바다의 수온은 최고 32도까지 치솟았다.

폐사가 되지 않은 키조개도 생육 부진이 극심해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키조개는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양식 어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장흥군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의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가 고수온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남해수산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내년 농산어촌개발 사업비 1375억 확보

농촌중심활성화 2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16개 지구 등
7개 분야 100개 지구 사업

전남도가 농산어촌 삶 개선 사업비로 137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9년 신규사업 공모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 분야 100개 지구에 13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보장하고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2개 지구 300억 원, 기초생활거점 16개 지구 640억 원, 마을만들기 3개 분야 66개 지구 360억 원, 시군 역량 강화 14개 지구 25억 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개 지구 50억 원 등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써 중심성이 높은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중심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만들기사업에선 행정리 단위의 1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선, 체험·소득증대 등이 추진된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 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한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강진, 영광에서 2019년 전국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농촌 고령자의 기존 생활환경을 고려해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에서 이뤄진다.

김종기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모사업 선정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읍면 중심지활성화, 교육·문화·복지 등 기반시설, 마을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농촌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연다
14.1% 올려 1만90원

광주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연다.

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0원으로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840원보다 14.1%(1250원) 오른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반영했다.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 중임을 고려해 생활임금적용 대상자의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올해부터 확대됐다.

인건비로 시비 100%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청소년삶디지안센터, 광주통일관, 금남로전시관 민간위탁기관 대상자는 1626명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 본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 3421명에게 35억3400만원을 지급했다./오광록 기자 kroh@

창덕궁서 첫 외국정상 공식환영식

문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를 맞아 역대 최초로 창덕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신남방정책에 있어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를 의식한 외교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청와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고 손님에 대한 예와 격식을 갖춰 환영하기 위한 행사"라며 "외국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 나라의 고궁에서 환영식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사례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외국 정상 환영식을 고궁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환영식은 창덕궁 내 금천교 입구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어린이 환영단이 조코위 대통령을 맞이하며 시작됐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초등학생 10명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 자녀 1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환영단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들고 흔들면서 양 정상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자세를 낮춰 어린이들과 악수하고 대화하며 인사했다.

이어진 환영식은 의장대와 군악대 사열·궁중무용 '가인전목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양 정상 부부는 전통의장대를 통과해 인정전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공연을 지켜봤다.

공식 환영식 이후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인정전 내부를 관람했고, 이후 카트를 타고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영화당'으로 이동해 환담을 했다. 환담 중에는 전통 소반에 준비한 다과를 함께 하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관해 설명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 부부는 영화당 인근 연못인 부용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방문을 특별하게 환영하고 싶었다"며 "지난해 보고르궁을 방문했을 때 조코위 대통령이 하도 자랑하길래 이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창덕궁에서 공식환영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덕궁은 600년동안 조선 임금들이 집무를 보고 외국 사신을 맞고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던 곳"이라며 "현대에 들어와 조코위 대통령이 조선의 궁에서 최초로 공식환영행사를 한 외국 정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창덕궁은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 곳을 환영식 장소로 선정한 것"이라며 "K팝 등 한류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